

불신앙, 죄, 사탄에 빠진 왕들과 하나님의 방법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

-복음으로 여는 열왕기하-

열왕기하 25:27-30, 마태복음 6:33

정윤돈 목사님

* **왕하25:27-30**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칠 년 곧 바벨론의 왕 에밀로다이가 즉위한 원년 십이월 그 달 이십칠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킨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 **마6:33**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준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셔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응답 받고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현장을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혹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과 의문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오직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제가 바닷가에 살아서 수영을 잘한다. 수영을 제일 좋아하고, 제가 수영을 가르친 사람도 굉장히 많다. 선수처럼은 아니어도 수영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어제 스키와 보드도 배웠다. 램프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재밌게 탈 수 있었다. 수영, 스키, 신앙생활도 처음이 어렵다. 자신감이 없다. 그때 제일 중요하게 선생님이다. 그냥 혼자 배우면 수영도 스키도 힘들다. 신앙과 복음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이 중요하다. 수영 선생님들은 지금 상대방이 지쳤는지, 물에 빠지는지, 죽을 것 같은지 딱 보면 안다. 이번에 와서 가르쳐주는 서로사랑 이사님이 스키를 그렇게 잘하신다. 그분이 장애인 체육선생님이시다. 우리가 뭐든지 절대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준비하고 도전하고 잘 배우면 얼마든지 절대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느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다. 잘 낚으려면 미끼가 좋아야 한다. 지금 RUTC와 여러 클래스들을 왜 이렇게 하나면, 옛날에는 교회에서 뭘 주면 바로 따라왔지만 이제는 스키 정도해야 온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전도와 복음을 위한 바탕이 되시기 바란다.

본문으로 돌아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열왕기하는 유다의 여호야킨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난 장면으로 끝나고 있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다. 바벨론은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잡아 눈을 뽑아 아들들을 죽이고 데려갔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바로 전 왕이 여호야킨 왕이다. 바벨론은 여호야킨 왕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다시 꺼내서 이후로 죽을 때까지 바벨론 왕과 같이 식사하도록 했다. 왜 37년 동안 갇혀있던 여호야킨 왕을 다시 꺼냈을까? BC.605년 제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20년 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제2차, 3차 포로 이후로 17년이 지났을 때다. 그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느 정도 중진에 있을 때다. 다니엘이 아마 찾아갔을 것이다. 다니엘이 감옥에서 나오는 걸 도와주었을 것이다. 위기에 대처 포로에 끌려가 감옥에서 수십 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고통당하고 심문 당한 왕을 램프트 남은 자가 살려냈다. 이러한 램프트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란다. 남유다 20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는 처참한 상황을 당하였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눈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 참복을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 후대들과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왕의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끌려간다.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마귀에게 쇠사슬로 묶여 노예와 포로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을 살려내는 전도자들 되어야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을 먼저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만 가지면 끝까지 지켜주신다. 다윗은 남의 부인을 빼앗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등 많은 부분이 부족했다. 우리도 그렇다.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미워하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 중심에 ‘다윗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낮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남 탓하는 마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천주교에서 한동안 구호로 쓴 말이 마음에 든다. ‘내 탓이요’ 남 탓이라고 하면 절대 흑암에서 나올 수 없다. 예수님은 당신은 죄가 없으면서 잘못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는 잘못된 게 없고 저 사람 때문이야, 국가 때문이야, 클린스만 때문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사람을 살릴 수 없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죄인이 아니라 ‘나의 의’다. 이제 종선인데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여당, 야당도 아니고 천당이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복음과 교회보다 더 표현해서는 안 된다. 거기 빠지면 속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지지한다. 그러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복음의 사람은 다 살리는 사람이다. 선교가 그런 것이다. 일본이 잘못된 걸 분명히 해야 하지만 마음으로 가득 차면 선교를 할 수 없다. 중국이 알뜰하게 구는 것도 인정하지만 중국이 아니면 세계복음화 못한다. 선교와 복음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다. 그게 선교다.

오늘은 열왕기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열왕기하는 총 25장으로 되어 있다. 열왕기하의 전체의 내용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남왕국 유다에 대한 내용이다. 북왕국에 있었던 19명의 왕들은 모두 불신앙과 죄와 사탄에 빠진 악한 왕들이었다. 왕은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복음만 없다.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와 교회보다 더 좋아하고 앞선 게 있으면 우리도 이 왕들처럼 된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갖고 싶은 왕이 누구인가. 우리는 너무 수준 낮은 걸 가지고 붙잡고 있다. 불신앙과 죄와 사탄의 울무, 툄, 함정에 빠져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행동을 했던 왕들을 8명이라고 보고 있다. 조금이라도 선한 행동을 했던 왕들의 이름은 다윗,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하시야, 아사사, 요시아이다. 이 땅에서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만 만들려 했던 이스라엘과 많은 왕들은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복음의 망대를 남겨 주셨고 바벨론 포로생활 속에서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복음의 망대로 남겨 주셨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약 150년간의 포로생활을 끝내고 성전을 회복하였다. 우리들도 불신앙과 죄와 사탄의 역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1. 먼저 불신앙과 죄와 사탄에 빠진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몇 사람만 대표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첫째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왕이 되자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더 심하게 다루려는 친구들의 조언을 들었다. 이러한 어리석은 판단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았다. 열왕기상 12장 14절을 보겠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가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무언가 말하면 MZ세대들은 ‘뭘?’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른들의 말을 듣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한다. 그걸 들으면 인생의 10년, 20년을 앞당길 수 있다. 백성들은 세금을 내고 노역을 하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백성들이 이제는 노역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르호보암 왕의 친구들은 어리석은 백성을 강하게 다루야 한다고 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모습인가. 우리도 흑암에 쌓이게 되면 어리석어지고, 결국 자신이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빛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들로 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수준, 표준을 삼으시기 바란다. 세상과 나의 경험을 기준 삼으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램프트들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 동성애에 빠지면 인생 다 망칠 수 있다. 그 사람들을 낙인찍거나 정죄할 게 아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란다.

(2) 아하시야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열왕기하 8장 27절을 보겠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아하시야 왕의 가장 큰 잘못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악한 왕 아합과 정략결혼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합 왕의 힘을 의지하였다. 세상의 힘 있는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면 처참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부를 떨어 아히고 줄을 서야 한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굉장히 처참한 삶이다. 그럴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란다. 다니엘은 악한 이방 왕들이 알아챘다. 우리의 배경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기면 된다. 그러나 의지하거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비굴한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다.

(3) 북이스라엘 예후 왕은 불원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벨알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라는 왕이 바알제단은 제하였으나 금송아지는 섬겼다. 우리에게 오래된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게 우리 모습이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

(4) 네 번째로, 남유다 왕 중에 대표적으로 악한 왕은 므낫세였다.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대표적으로 의로운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삶을 전혀 본받지 않고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 엄마, 아빠가 훌륭하다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부모와 후대들에게 다 장단점이 있다.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배워야 한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을 보겠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 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와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 20명의 왕들은 대부분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갔다. 열왕기하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씀이 10번이나 나오고 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열왕기하 23장 32절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여호아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러한 왕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

2.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에게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째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위기의 시대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었다. 특히 엘리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미리 보여준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① 엘리사는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알았다.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였다. 열왕기하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갑절’의 의미는 장자의 축복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② 엘리사는 이 갑절의 영감의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엘리사는 요단강의 물을 갈랐다. 이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즉, 구원의 복음을 보여준 것이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엘리사는 소금으로 여리고의 물을 고쳐주었다. 여리고 사람들이 너무 가물어 하니 소금을 뿌려 못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었다. 이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다.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 37절을 보면 그는 죽은 수넵 여인의 아들을 살렸다. 이는 후대문제를 치유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었다. 이는 절대 불가능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의 망대로 쓰임 받았다. 이 9가지 보좌의 능력이 성도들과 후대들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축원드리겠다.

(2) 히스기야 왕은 위기 속에서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받았

다. ① 먼저 히스기야 왕은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시켰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회복한 종교개혁이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복음, 유월절을 잊었다.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과 복음을 다시 지켰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다. 교회는 많고 목사님들은 많은데 순수한 복음과 유월절을 잃어버렸다. 여러분과 우리 교단의 역할이 크다. 복음 안에 다 있다. 역대하 30장 1절을 보겠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와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었다. ②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회개 기도를 통하여 15년간의 생명 연장을 받았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니라 내가 삼 일 만에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잇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겠다 하라 하셨더라” 우리도 부족하고 넘어질 때 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사람과 같이 다르지 않다. ③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서, 천사를 동원해 잇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밤에 전멸시켜 주셨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겠다. “이 밤에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잇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것이 천사동원 권이고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권세다. 그리스도인 중에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어떠한 강대국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강대국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요새 전쟁이 많다. 그 백성들은 무슨 잘못인가.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전쟁 터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소용이 없다. 후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18만 5천 명의 적군도 이길 수 있으며 나만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란다. 현장도 마찬가지로.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리더의 응답의 증거가 날마다 있기를 바란다.

(3) 요시아 왕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결국 요시아가 찾아낸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동원에 하나님 모든 말씀이 정리될 수 있었다. 사무엘상,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 바벨론 포로 당시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포로시절에 이 왕국기를 정리한 것이다. 다니엘과 바벨론 램넛트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역사를 정리했는데, 그 자료를 찾아낸 게 요시아 왕이다. 요시아 왕은 중요한 시간표에 나라와 민족과 후대를 위하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발판을 남겼다. 열왕기하 23장 2절 중간의 말씀을 보겠다. “여호와와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 기도문 중 7여정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여정의 7가지는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산,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다.

① 성삼위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② 나에게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③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하옵소서.

④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산,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⑤ 나와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하옵소서.

⑥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그곳이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어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귀한 영적 비밀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과 위정자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앙과 죄와 사탄 속에 빠져있는데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어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